

# “영암만의 가치 재창출...혁신 속도 높일 것”

올해 새해설계

우승희 영암군수

## 문화·경제·복지·농업 등 10대 중점 목표 제시 생활인구 확대·청년 유입·문화관광 1번지 도약

“혁신과 도약으로 주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영암의 더 큰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영암만의 가치 재창출’하고 ‘생활인구 확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암’, ‘똑똑한 스마트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핵심 키워드로 혁신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중점 목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먼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영암한 달 살기’, ‘위케이션 in 영암’과 같은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민속씨름단 후원회 발족 및 전국 대회 개최로 영암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디지털 영암군민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며 이



주민 정착 지원과 공동체 조성을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한다.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조달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으로 지역 경제 자생력을 강화한다.

지역화폐 ‘월출페이’를 확대하고 대불산단 중심의 친환경 선박·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며, 제2특화농공단지과 농촌 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영산강 벨트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구림마을 마을호텔과 장영공간 조성, 천황사 힐링 테마지구 개발 등 체류형 관광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민 복지 강화에도 집중한다. 어르

신 일자리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새싹 돌봄센터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 노인건강과 신설 및 주민주치의 제도 확대, 치매 전담 요양원 설립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가능성 쌀, 무화과, 고구마 등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영암 농식품유통센터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영암형 농지은행’을 운영해 귀농·귀촌 및 청년 농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주택 300호 공급, 청년 일자리 1천개 창출,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문화거리와 월출산 달빛 위케이션 같은 프

로젝트로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발전 특구’를 기반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쓴다. 평생학습관 건립과 독서대전 개최로 인문 도시 영암의 위상을 높이고,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 밖에 농촌형 교통 복지로 찾아가는 콜버스 확대, 스마트 신호등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며 군민 이동권을 보장한다.

우승희 군수는 “혁신의 궤도에 오른 영암호는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이라며 “공직혁신의 성과와 분위기를 군민과 지역으로 확산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기자

## 목포시, 녹장 제설...출근길 시민 ‘분통’

### 제설작업 준비 미흡 출근길 대혼란...누리집서 비판 잇따라 市 “예보 벗어난 상황...기상 신속 확인·대비책 강화 할 것”

지난 7일 이른 오전 목포시 일대에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인해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목포시의 제설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이른 오전 내린 강설(3.6~4.1cm)로 인해 3~4곳에서 교통정체와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목포시청과 목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와 도로 미끄러움으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목포시는 8일 오후 재난대책회의를 통해 강설 예보에 따른 제설대책을 논의했으나, 당시 기상청 예보에 따라 7일 오후와 8일 이른 오전 대비를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7일 이른 오전 갑작스러운 강설로 제설작업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목포시청 앞을 지나는데만 50분이 걸렸다”며 “많지 않은 적설량에도 목포시의 녹장 대응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은 “도로의 미끄러움 때문에 경사 구간에서 계속 정체가 발생했다”며 능동적인 제설작업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목포시 누리집에는 빙판길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산정로 빙판길 위치 사진(상세지도)’과 함께 “도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산정로 근화그린맨션 앞 도로가 빙판길이 됐다”며 “목포시청 부근 산정로에서 고속도로 방

면으로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민들도 “포미타운 지역의 제설작업 부재로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 “갯바위와 통일대로 등 주요 도로 제설작업이 미흡하다”며 목포시의 제설작업을 비판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기상예보에 없는 눈이 내려 오전 6시 40분 비상 소집을 통해 제설차량 6대에 연화칼슘을 급하게 적재해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1대 당 200만원 정도 하는 연화칼슘을 차에 적재한 후 2~3일이 지나면 굳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적재하기 어렵다”며 “적재하는 시간 또한 1대 당 30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보 확인과 현재 기상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이다. 앞으로는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김산 무안군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최선”

### 군민 심리치료·의료지원 등 후속 조치 지시

무안군은 8일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산(사천) 무안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후 김산 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희생자가 수습돼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 지원과 사태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9일까지 대설·한파 특보가 예

보돼 있어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 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민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많으니,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무안군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유가족들을 위해 공항 헬터 공간을 2층으로 일원화하고 방역과 환경정리 등 재정비를 마쳤다.

무안군은 장례 후에도 빈틈없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공항 내 현장상황실



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구호 물품 관리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들어온 기부 물품은 유가족과 협의해 배부하고, 사고 직후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성호기자

## 해남군, 작년 하반기 재정집행 84.8% 달성

### 3년 연속 도내 군 단위 1위...소비·투자분야 159억 초과 성취

해남군이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에 84.8% 집행률을 달성해 3년 연속 도내 군단위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재정집행 대상액 1조2천470억원 중 1조571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 목표액 대비 159억 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어려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례 매년 1조2천~1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민선 7-8기를 거치며 해남군의 본예산은 2017년 4천630억원에서 2025년 8천97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재정운용 관리를 통해 집행률은 매년 향상돼 지난해 하반기에는 84.8%까지 높아졌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 관리와 이월사업 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을 제고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급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확대를 극대화했다.

해남군은 신속·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해남=백필용기자



신안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 ‘섬 겨울꽃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약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을 걸으며, 4천만 송이에 달하는 애기동백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기간 연장

### 내달 2일까지...설 명절 귀향객 불거리 제공

신안군은 8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개최한 ‘섬 겨울꽃 축제’를 애기동백꽃 절정 기간을 반영해 축제 기간을 오는 2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004섬 분재정원 내 4천만 송이의 애기동백꽃 개화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축제 종료로 아쉬워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잡고자 연장을 결정했다.

겨울꽃은 오는 2월 2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연장된 축제 기간에 설 명절이 포함돼 있어 관광객과 귀향

한 향우민들에게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섬 겨울꽃은 3km에 걸쳐 조성된 애기동백 숲길을 따라 붉은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명품의 가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분재도 전시돼 있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4섬 분재공원 내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겨울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엽서 쓰기, 소원지 쓰기 등 저녁

노을 미술관에서 소원 편지 쓰기와 동백 그림 그리기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아 에어돔에서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카페와 휴식 공간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빨간색 옷(상하의)을 착용한 관광객은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펼쳐지는 ‘섬 겨울꽃 축제’에서 아름다운 애기동백꽃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한해의 희망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안=양홍기자

##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 1인당 5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영광군은 8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 촉진 및 군민 생활안정을 보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지원금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총 5만 2천 333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200여억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영광군의회에서 예산과 지원 조례를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승

인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설 이전 지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자는 지급 기준일(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군민이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1차)은 오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 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읍·면에서 가능하며 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1차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영광군에 환수된다. /영광=김동규기자

## 강진 ‘하멜촌 커피’ 관광객 유치 나선다

### 지원사업장 10개소 모집...대중화 브랜드 이미지 구축

강진군이 지역 특화 음식의 일환으로 개발한 ‘하멜촌 커피’ 대중화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하멜촌 커피’를 관내 카페 영업자에게 보급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하멜촌커피 지원사업장을 모집한다.

하멜촌커피 지원사업은 하멜촌커피 원두와 드립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카페업 영자를 대상으로 총 10개소를 모집한다. 지원비는 업소당 200만원 지원되며, 군비와 자부담은 각각 100만원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하멜촌커피 현관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하멜촌커피 홍보를 위해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적극 활용하고 비치해야 한다.

또한 원두와 드립백 중 취급 항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는 원두와 드립백 둘 다 취급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17일까지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031-430-3188)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정영록기자